



음악 예능 흥수

섭외 경쟁에 가수들은 '난감'

SBS '신의 목소리'·MBC '듀엣가요제'·SBS '판타스틱 듀오' 설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호평 얻어 모두 정규 편성 "특정 프로그램 출연해 다른 방송사 밭보일까 걱정"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사들의 출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겹치기 출연을 하거나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를 드나드는 가요 관계자들은 29일 "MBC와 SBS가 유사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잇달아 신설하면서 섭외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SBS TV '보컬전쟁-신의 목소리'가 30일 첫 방영되는 가운데 내달 8일과 17일에는 MBC TV '듀엣가요제'와 SBS TV '일요일이 좋다-판타스틱 듀오'가 각각 전파를 탄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여 호평을 얻은데 힘입어 정규 편성된 이들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가수가 함께 출연하거나 듀엣 형식이란 점에서 각기 공통분모가 있다. 조금씩 구성의 차이는 있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음악 예능이란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 모두 가창력이 뛰어난가나 인기 높은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때문에 예능국의 가요 프로그램 출연에 사활이 걸린 가요 기획사들은 예능 프로

그램 출연 과정에서 방송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 심지어 '신의 목소리'와 '듀엣가요제'는 MC도 성시경으로 같다. 비슷한 두 프로그램을 모두 택한 성시경은 지난 28일 1시간 차를 두고 열린 제작발표회에 잇달아 참석하는 촌극을 빚었다. 복수의 방송사로부터 동시 섭외를 받으면 한쪽에만 출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각각의 프로그램 섭외에 응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냐도 고민거리다. 가수들의 경우 KBS 2TV '뮤직뱅크', MBC TV '쇼 음악 중심', SBS TV '인기가요' 등 가요 프로그램 출연이 프로모션의 중요한 기반인데 이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예능국과 자칫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한 아이돌 그룹 기획사 대표는 "이 문제가 요즘 화두"라며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른 방송사에 밭보일까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 아이들이 있거나 신인 데뷔를 앞둔 기획사들은 혹시라도 가요 프로그램 출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실 방송사 간 힘겨루기는 예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방송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일 때도 특정 방송사 오디션 출신 가수들은 다른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 출연이 원활하지 않았다. 다음 달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발탁될 11인조 걸그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출연자 선정은 PD의 고유 권한이나 다른 방송사에서 화제가 된 팀을 출연시키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가요 관계자들은 음악 예능이 생기는 걸 반색할 법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달갑지 않은 것 같고 꼬집었다. 명절 파일럿 때 확인됐듯이 일단 음악 예능은 기본 시청률이 담보된다. 이번에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들은 지난 설 연휴 시청률 2~4위를 기록했다. 방송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수는 예능 출연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큰 매리트다. 실제 이미 방송 중인 음악 예능도 KBS 2TV '블루의 명곡'을 비롯해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MBC TV '복면가왕' 등 다양하다. 15년 경력의 한 매니저는 "예능과 가요 프로그램 출연은 유기적이어서 예능에 배우보다 가수를 섭외하는 게 훨씬 쉽다"며 "가요 프로그램 출연이 절실한 가수들은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음악 예능이 넘쳐나도 정작 노래하고 싶은 가수들이 설 무대는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뉴스에 유대위님이? 송중기, KBS '뉴스9' 출연

연예인 최초 직접 출연...시청자 질문 받습니다 '태양의 후예' 내달 20일부터 스페셜 방송 편성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 제2의 약을 이끄는 배우 송중기가 오는 30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한다고 KBS가 29일 밝혔다. 연예인이 '뉴스9'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KBS는 KBS 뉴스 홈페이지(news.kbs.c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KBSnews), 트위터(www.twitter.com/KBSnews) 등 SNS계정을 통해 송중기에게 묻고 싶은 시청자 질문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30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KBS는 첫 방송 이후 매회 가파른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 10회 31.6%(닐스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KBS는 '태양의 후예' 종영 다음 주인 4월 20일부터 3일간 밤 10시에 '태양의 후예' 스페셜 방송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일에는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재편집한 하이라이트 방송이, 22일에는 에필로그와 메이킹 필름이 공개된다. 16부작인 '태양의 후예'의 종영일은 4월 14일로, KBS는 후속작인 '마스터-국수의 신'의 첫 방송일을 20일에서 27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주상욱♡차예련 "촬영하며 가까워졌어요"

최근 막을 내린 MBC TV '화려한 유혹'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주상욱(38)과 차예련(31)이 현실에서 교제를 시작했다. 주상욱의 소속사 메이던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주상욱과 차예련이 '화려한 유혹'을 오랜 시간 함께 촬영하며 가까워졌고, 드라마가 종영한 최근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다"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예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예련의 소속사 매니지먼트구는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다"라고 밝혔다. 주상욱과 차예련은 지난 27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들은 50부작 '화려한 유혹'에서 친구이자 연인 사이로 호흡을 맞췄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쟁 끝내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들춰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⑪ 40 나는 몸신이다(재)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 55 인당 우리말(재)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닥터 365 0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35 글로벌 문화유산	
⑫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꿈지락
①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웍드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1대 100(재)		
② 30 직언직설	00 2016 KBS배 전국 총계 하기대회 <여교부 결승>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시청자대상
③ 00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55 튜닝생활제조(재)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④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청년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생활
⑤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10 제20대 총선 정당정책 연설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또뚝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낚시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⑦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⑨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00 시사토론 '10' 55 송터	00 공사창립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백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신의 목소리
⑫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생존의 바다 인도네시아 상어잡이>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대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EBS 초대석 13:40 사이언스 워드 사춘기 13:50 이맘 스페이스 정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책과 땅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후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집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강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대기행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3부 바다의 선물> 21:30 한국기행 <영아리 투어 3부 할머니는 1학년> 21:50 EBS 다큐 프라임 <우리집 끈대 3부, 아빠 보고서> 22:45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화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 (음 2월 22일辛亥)	
子	48년생 애dauer 기다리던 보람이 있을 것이다. 60년생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리라. 72년생 머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84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9, 05	午	42년생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다. 54년생 추저하다가 가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66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78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11, 38
丑	49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6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73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남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85년생 천우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61, 68	未	43년생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세이니 신경 써야한다. 55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도다. 67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54, 62
寅	50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62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74년생 예로 상황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6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27, 51	申	44년생 여러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56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68년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80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던 무용지물이다. 행운의 숫자 : 89, 55
卯	51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63년생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75년생 가지치기를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87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불만함이 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18, 28	酉	45년생 요령을 활용하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57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인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69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라. 81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6
辰	40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52년생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64년생 두말하면 잔소리다. 76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88년생 결지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9, 19	戌	46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58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 82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6, 93
巳	41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53년생 아무 소용이 없다. 65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77년생 일관된 태도만이 진일 보낼 수 있다. 89년생 확실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7, 44	亥	47년생 뒷방으로 이종 또는 삼종의 행운이 따르리라. 59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면모를 접하게 되리라. 71년생 직접 나서서 적극성이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끼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74, 78